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창진

전화 051-780-4308

보도자료

2021. 2. 9.(화)

제목

여성 강간하려다 혀 절단 당한 피고인 구속 기소, 피해여성 정당방위로 불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1조 제1항)

- 부산동부지청은 오늘(2. 9.)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려가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에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,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을 강간치상, 감금으로 구속기소하고, 피고인으로부터 혀절단 중상해로 고소당한 피해자에 대해 “정당방위”로 불기소처분함

I 공소사실 요지

○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은 '20. 7.경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편의점 등에 들러 청테이프, 콘돔, 소주 등을 구입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감
- 이후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조수석에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키스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여

미수에 그치고,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술 등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[강간치상, 감금]

II 수사 경과

- '20. 7. 19. 피고인은 혀가 절단되자 피해자를 중상해로 신고
- '20. 8. 6.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
- '20. 10. 20. 부산남부서, 강간치상 등 사건 기소의견 송치
 - ※ '20. 11. 2. 피해자의 중상해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
- '21. 2. 4. 검찰, 피고인 구속
- '21. 2. 9. 피고인 구속기소, 피해자 “정당방위”로 불기소(죄가안됨)

III 참고 사항

-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혀절단(3cm)의 부상을 입자 경찰에 ‘피해자가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’고 신고함
- 피고인의 승용차 블랙박스 음성분석 등을 통해 강간치상 범행을 입증하여 구속기소함
-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불기소(죄가안됨) 처분함
-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,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임 ☑